

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인식*

Parent's Percep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Childcare Support Center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 for the Providing 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정슬기¹ 강정원²

Seulgi Jung¹ Jeongwon Kang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arents' percep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Childcare Support Center (C.S.C.)'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E.C.E.P.I.)' as home care support service providers.

Methods: The goals and content of the home parenting support service offered by the C.S.C. and E.C.E.P.I. were analyzed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ir websites, publications, and various promotional materials. There were categories into 18 services across 5 categories. Responses of 421 parents, gathered through a questionnaire developed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Parents reported high degree of suitability for the organizations they used. Those familiar with both institutions found E.C.E.P.I. more suitable overall. However the C.S.C. was considered particularly suitable by parents of children aged 0-2 years and by those with no prior experience with either institution. The perceived suitability of the two institutions varied by service,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age group of the children, whether the parents liv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whether they were part of a double-income household.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polic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which should take into account parents' perceptions of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key words 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 childcare support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 the policy of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성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및 2024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2 교신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kjw6869@bible.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전국은 0.72명, 서울은 0.55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사회문제가 되어 국가적 비상사태로 여겨지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낮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2000년도에 3.1명이었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에는 2.2명으로 감소하였고, 3인 이상 가구 비율은 2000년 65.4%에서 2022년에는 36.8%로 줄어들었다(통계청, 2023). 이와 같은 가구원 수의 감소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자녀 양육 가구가 줄고 있고, 확대가족에 비해 양육의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핵가족이 많아짐을 의미한다(윤덕우, 2011). 가구원의 수가 적을수록 홀로 자녀 육아를 감당하는 상황이 자주 생겨 후속 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연경, 2019; 전효정, 2024; 진경선, 김고은, 2020; 최미란, 장경은, 2017).

이러한 인구감소, 핵가족화, 양육자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육아 기능이 약화가 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있다(권미경 외, 2016). 국가와 지방정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양육상담, 부모교육, 놀이체험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4).

한편, 2023년 12월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유보통합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전담 부서가 됨을 공포하였다(교육부, 2024. 6). 따라서 유보통합의 실행 과정에서 각각의 지원체계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최효미, 김태우, 2023).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보육 지원과 함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었고, 교육부는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대민서비스보다는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로 관장했었다(김아름 외, 2023). 2024년 7월 3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향후 유보통합의 전격적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된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법적 근거를 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3년에 성남에서 생긴 보육정보센터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을 지원해 왔다(도미향, 2013).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후에는 어린이집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이 가능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더 하여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 이후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집 지원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윤경미, 2023). 2024년 현재 전국 131개의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상담과 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주로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 체험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6개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

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유아교육을 위한 중요한 주체인 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가족 체험, 학부모 연수, 양육 정보 제공 등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박창현 외, 2018).

선행연구를 통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이용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의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이나 체험관의 이용에 대한 연구(이신경, 2014; 최수정, 2015)에서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 체험 서비스 이용 가정의 요구에 대한 연구들(강민정, 2015; 여경하, 2014; 이자형, 김성순, 2020)에서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놀이 체험실의 가치가 강조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높지만(김민재, 2017; 최세나, 2018), 장난감도서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접근 용이성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박선경, 201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 정보 제공 서비스는 자녀의 발달 특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양육 관련 프로그램 안내 등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돕는 동시에 전문성이 검증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엄민정, 2021). 그 외의 부모 모임 동아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은 양육효능감이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으며(고재경, 2019),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하며(김수정, 이유미, 2021)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육길나, 강은진, 2016).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연수 운영 방법에 관한 만족도 연구(문희선, 2018)에서는 홍보 방법 개선, 신청자 수용 방법 및 신청 인원수 증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혜정 외(2015)의 세종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주말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과 자녀 발달단계 이해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역별로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복지 정책과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지원 정책의 하나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김미정, 이지선, 2024), 보육전문요원과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층 면담을 한 윤경미(2023)의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유보통합 추진의 시점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업무 특성이 있는 두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적합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첫째,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범주 추출

국가와 지방정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가정 내 양육하는 부모와 영유아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와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권미경 외, 2016)를 포함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기간 동안 전수조사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발간자료, 각종 홍보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분석하여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77개의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범주화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강민정, 2015; 김설아, 2015; 김수정, 이유미, 2021; 문희선, 2018; 엄민정, 2021; 여경하, 2014; 이봉선, 2017; 이신경, 2014; 이자형, 김성순, 2020; 최명희, 2016; 최세나, 2018; 최수정, 2015; 최혜미, 2015) 검토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1.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분석 범주

구분	서비스의 내용	예시
놀이체험	긍정적 가족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부모 놀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놀이 체험실의 운영,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 활동, 시간제 보육실의 이용, 가족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
물품대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여 서비스	놀잇감 대여, 도서 대여, DVD 대여, 육아용품 대여 등
육아정보제공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모가 올바른 자녀양육 정보와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육아정보지 발간과 홈페이지, SNS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육아자원, 교육과정, 육아상식 및 놀이방법, 육아 관련 동향, 육아 고민 질의 응답 등
부모모임지원	부모들이 육아로 겪는 어려움을 모임 속에서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부모 모임(동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모임의 활동비를 지원, 참여자를 모집하여 부모 모임(동아리)구성 지원 등
부모교육 및 상담	가정에서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교육 주제로 부모 대상 교육과 강연 운영,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과 부모의 육아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그룹 부모교육, 부모교육 강연, 부모상담, 영유아 발달검사,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 등

2.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현황 분석

5개 범주 18개 유형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조사 하기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범주별 분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학 박사 1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1인의 안면 타당도 검증은 하였다. 불확실할 경우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사업 내용을 인지한 후 분류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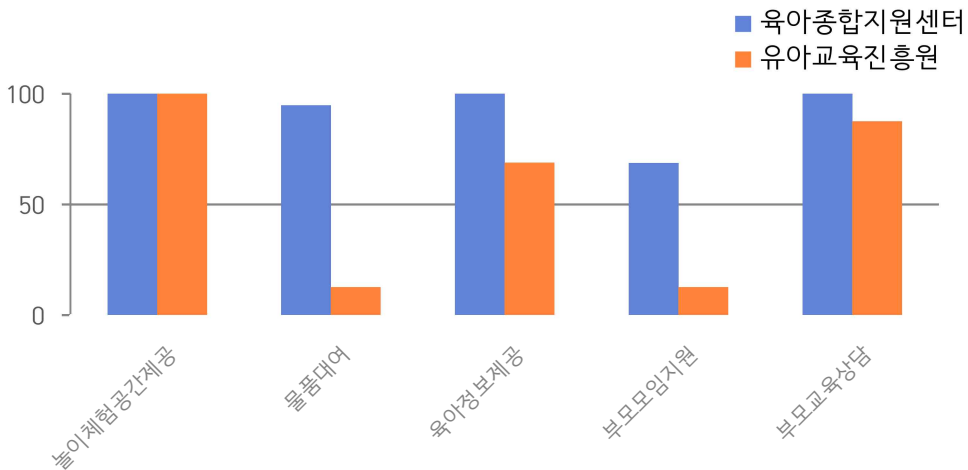


그림 1.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현황

위의 그림 1과 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놀이체험 공간 제공이었으며, 부모교육 및 상담, 육아정보 제공의 순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놀이체험은 모든 기관(131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16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었다. 물품대여 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4.7%로 대다수 기관이 실시하는 반면, 유아교육진흥원은 87.5%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육아 정보 제공은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100%)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유아교육진흥원은 68.8%만이 제공하였다. 부모모임 지원 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68.7%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12.5%만 제공하였다. 부모교육 상담 서비스는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100%)가 사업을 진행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은 87.5%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18개의 서비스가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조사연구

1) 설문지 제작

조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만족도 조사연구(김민재, 2017; 문희선, 2018; 손경화, 2017), 이용자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들(고재경, 2019; 김인희, 2021; 이희은, 2016)을 토대로 하되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관련 연구(김경미, 2019; 이도은, 2021)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박창현 외, 2018; 최수정, 2015) 등을 참고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3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설문지의 세부 구성은 표 2와 같았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질문유형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택일
기관 이용 경험	①육아종합지원센터 ②유아교육진흥원	2	해당 항목 표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① 놀이체험 서비스 ② 물품대여 서비스 ③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④ 부모 모임 지원 서비스 ⑤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5	이용 경험 유무 택일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적합성	① 놀이체험 서비스 ② 물품대여 서비스 ③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④ 부모 모임 지원 서비스 ⑤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5	두 기관 중 택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 성별, 연령, 소득형태, 지역 자녀: 연령	5	해당 항목 표시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유아교육진흥원의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혹은 시군구 관계없이)가 가까이에 설치된 곳을 찾아 선정하였다. 총 425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42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관별로 이용 경험 여부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이 가운데 두 기관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2명(59.9%), 유아교육진흥원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명(5%),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용한 경우는 96명(22.8%), 두 집단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52명(12.3%)이었다. 설문조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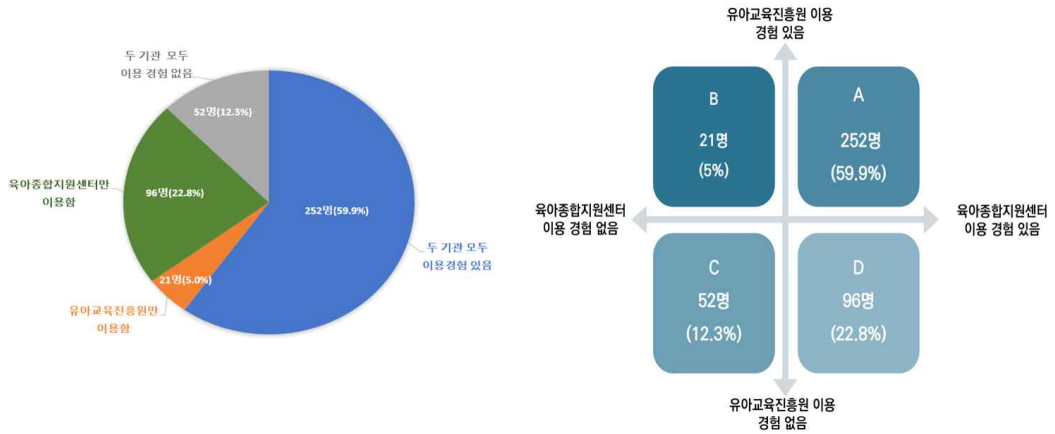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자들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의 분포

표 3.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21)

특성	범주	빈도(명)	백분율(%)
성별	어머니	383	91.0
	아버지	38	9.0
연령	20대	22	5.2
	30대	293	69.6
	40대이상	106	25.2
자녀 연령	영아	180	42.8
	유아	241	5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9	63.9
	홀벌이	152	36.1
거주지역	서울시	108	25.7
	경기·인천권	129	30.6
	충청권	58	13.8
	전라권	53	12.6
	경상권	73	17.3
합계		421	100.0

3) 자료수집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주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두 기관이 같은 기초 지자체 단위 행정구역에 있거나, 10km 이내에 위치하여 응답자가 두 기관을 모두 이용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등에 유선으로 설문 참여 협조를 구하고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실무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부모를 모집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천받거나 참여가 저조한 지역은 맘카페나 SNS의 해당 지역 모임방에 게시글로 온라인 설문지 URL을 작성하였고 1:1 쪽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QR 및 URL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응답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425부이며 불성실한 응답 4부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1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코딩하여 SPSS 23.0 프로그램으로 기술 통계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기관 이용 경험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합성 인식

부모가 유아교육진흥원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두 기관 모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두 기관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별로 적합한 제공기관을 표시하게 한 응답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이용경험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별 기관의 적합성 인식 (N=421)

	유아교육 진흥원만 이용한 부모 (21)		육아종합 지원센터만 이용한 부모 (96)		모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252)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 (52)		$\chi^2/df=3$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이용	17(81.0)	4(19.0)	15(15.6)	81(84.4)	148(58.9)	104(41.3)	23(44.2)		29(55.8)
놀이 체험	부모자녀소그룹 놀이활동	19(90.5)	2(9.5)	33(34.4)	63(65.6)	148(58.9)	104(41.3)	29(55.8)	23(44.2)	28.48***
	시간제보육실	5(23.8)	16(76.2)	19(19.8)	77(80.2)	112(44.4)	140(55.6)	9(17.3)	43(82.7)	28.10***
	가족 문화행사	17(81.0)	4(19.0)	38(39.6)	58(60.4)	143(56.7)	109(43.3)	26(50.0)	26(50.0)	15.13***
물품 대여	장난감 대여	6(28.6)	15(71.4)	9(9.4)	87(90.6)	103(40.9)	149(59.1)	16(30.8)	36(69.2)	31.94***
	도서 대여	13(61.9)	8(38.1)	24(25.0)	72(75.0)	123(48.8)	129(51.2)	26(50.0)	26(50.0)	19.90***
	육아용품 대여	3(14.3)	18(85.7)	14(14.6)	82(85.4)	94(37.3)	158(62.7)	8(15.4)	44(84.6)	25.29***
놀이관련 정보	11(52.4)	10(47.6)	32(33.3)	64(66.7)	150(59.5)	102(40.5)	27(51.9)	25(48.1)	19.12***	
육아 정보 제공	어린이집 이용안내	7(33.3)	14(66.7)	33(34.4)	63(65.6)	130(51.6)	122(48.4)	16(30.8)	36(69.2)	14.14***
	홈페이지 육아정보	6(28.6)	15(71.4)	37(38.5)	59(61.5)	125(49.6)	127(50.4)	20(38.5)	32(64.5)	6.95
	육아정보지 발간	7(33.3)	14(66.7)	28(29.2)	68(70.8)	123(48.8)	129(51.2)	20(38.5)	32(64.5)	12.17***
지역 육아정보 문의	7(33.3)	14(66.7)	23(24.0)	73(76.0)	121(48.0)	131(52.0)	16(30.8)	36(69.2)	19.31***	

표 4. 계속

		유아교육 진흥원만 이용한 부모 (21)		육아종합 지원센터만 이용한 부모 (96)		모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252)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 (52)		$\chi^2/df=3$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부모 모임	부모힐링 프로그램	12(57.1)	9(42.9)	32(33.3)	64(66.7)	127(50.4)	125(49.6)	
부모 모임	부모 자조모임	10(47.6)	11(52.4)	25(26.0)	71(74.0)	128(50.8)	124(49.2)	16(30.8)	36(69.2)	20.89***
	부모 동아리	10(47.6)	11(52.4)	35(36.5)	61(63.5)	124(49.2)	128(50.8)	26(50.0)	26(50.0)	4.90
부모 교육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11(52.4)	10(47.6)	38(39.6)	58(60.4)	156(61.9)	96(52.5)	33(63.5)	19(36.5)	15.35**
	부모상담	10(47.6)	11(52.4)	31(32.3)	65(67.7)	129(51.2)	123(48.8)	25(48.1)	27(51.9)	10.08*
	영유아상담 및 치료	13(61.9)	8(38.1)	38(39.6)	58(60.4)	137(54.4)	115(45.6)	30(57.7)	22(42.3)	7.98*

** $p < .01$, *** $p < .001$.

위의 표 4를 통해서 부모들의 이용 경험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원만 이용한 부모 21명은 놀이체험공간 이용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실 이용(23.8%)을 제외한 놀이체험실, 이용,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 활동, 가족문화 행사 등에서 80% 이상이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물품대여서비스는 장난감 대여(71.4%), 육아용품 대여(85.7%)로 인식하였다. 육아정보제공 서비스는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부모모임지원 서비스는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비슷하게(47.6%~57.1%)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서 영유아상담 및 치료(61.9%)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더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용한 부모 96명은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60% 이상의 부모들이 유아교육진흥원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장난감 대여(90.6%), 육아용품대여(85.4%), 놀이체험실 이용(84.4%)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 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모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252명은 두 기관이 40~60% 사이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 중에 20%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부모교육(61.9%)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육아용품대여(62.7%)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두 기관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지 않은 부모들 52명은 직접 경험 없이 두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실 이용(82.7%), 장난감 대여(69.2%), 육아용품 대여(84.6%),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64.5~69.2%), 부모자조모임(69.2%)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18개 중에서 16개가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었다. 그중 가장 차이가 큰 서비스는 놀이체험실 이용 서비스($\chi^2(3) = 61.34, p < .001$)였다. 한 기관만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자신이 이용한 곳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지만, 두 개 기관 이용 경험이 모두 있는 부모와 두 개 기관 이용 경험이 모두 없는 부모들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활동 서비스($\chi^2(3) = 28.48, p < .001$), 가족문화 행사 ($\chi^2(3) = 15.13, p < .001$), 도서 대여($\chi^2(3) = 19.90, p < .001$), 놀이관련 정보($\chi^2(3) = 19.12, p < .001$), 부모힐링프로그램($\chi^2(3) = 9.27, p < .05$), 영유아상담 및 치료($\chi^2(3) = 7.98, p < .05$) 등이 같은 양상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육아정보 제공($\chi^2(3) = 6.95, p > .05$)과 부모동아리 모임 지원($\chi^2(3) = 4.90, p > .05$)은 집단 간 차이가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2.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합성 인식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부모 인식이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과 같다.

표 5. 자녀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합성 인식 (N=421)

	영아		유아		$\chi^2/df=1$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 체험	놀이체험실 이용	62(34.4)	118(65.6)	141(58.5)	100(41.5)	23.89***
	부모-자녀 소그룹놀이활동	80(44.4)	100(55.6)	149(61.8)	92(38.2)	12.55***
	시간제보육실	55(30.6)	125(69.4)	90(37.3)	151(62.7)	2.10
	가족 문화행사	80(44.4)	100(55.6)	144(59.8)	97(40.2)	9.70**
물품 대여	장난감 대여	40(22.2)	140(77.8)	94(39.0)	147(61.0)	13.37***
	도서 대여	69(38.3)	111(61.7)	117(48.5)	124(51.5)	4.36*
	육아용품 대여	44(24.4)	136(75.6)	75(31.1)	166(68.9)	2.27
육아 정보 제공	놀이관련 정보	83(46.1)	97(53.9)	137(56.8)	104(43.2)	4.76*
	어린이집 이용안내	78(43.3)	102(56.7)	108(44.8)	133(55.2)	.09
	홈페이지 육아정보	74(41.1)	106(58.9)	114(47.3)	127(52.7)	1.60
	육아정보지 발간	67(37.2)	113(62.8)	111(46.1)	130(53.9)	3.30
	지역 육아정보 문의	67(37.2)	113(62.8)	100(41.5)	141(58.5)	.79
부모 모임 지원	부모힐링 프로그램	75(41.7)	105(58.3)	119(49.4)	122(50.6)	2.47
	부모 자조모임	73(40.6)	107(59.4)	106(44.0)	135(56.0)	.50
	부모 동아리	71(39.4)	109(60.6)	124(51.5)	117(48.5)	5.98*
부모 교육및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101(56.1)	79(43.9)	137(56.8)	104(43.2)	.02
	부모상담	81(45.0)	99(55.0)	114(47.3)	127(52.7)	.22
	영유아상담 및 치료	94(52.2)	86(47.8)	124(51.5)	117(48.5)	.02

* $p < .05$, ** $p < .01$, *** $p < .001$.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서 대부분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들에게서 놀이 체험실 이용($\chi^2(1) = 23.89, p < .001$),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 활동($\chi^2(1) = 12.55, p < .001$), 가족 문화행사($\chi^2(1) = 9.70, p < .01$), 놀이 관련 정보($\chi^2(1) = 4.76, p < .05$), 부모 동아리($\chi^2(1) = 5.98, p < .05$) 등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으로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합성 인식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농산어촌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역 시도교육청 단위로 도시에 있어 농산어촌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부모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두 개 기관 모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적합성 인식 (N=252)

	수도권 (139)		비수도권 (113)		전체 (252)		$\chi^2/df=1$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 체험	놀이체험실이용	85(61.2)	54(38.8)	63(55.8)	50(44.2)	148(58.7)	104(41.3)	.750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활동	85(61.2)	54(38.8)	63(55.8)	50(44.2)	148(58.7)	104(41.3)	.750
	시간제 보육실	72(51.8)	67(48.2)	40(35.4)	73(64.6)	112(44.4)	140(55.6)	6.790***
	가족 문화행사	82(59.0)	57(41.0)	61(54.0)	52(46.0)	143(56.7)	109(43.3)	.16
물품 대여	장난감 대여	62(44.6)	77(55.4)	41(36.3)	72(63.7)	103(40.9)	149(59.1)	1.786
	도서 대여	73(52.5)	66(47.5)	50(44.2)	63(55.8)	123(48.8)	129(51.2)	1.706
	육아용품 대여	62(44.6)	77(55.4)	32(28.3)	81(71.7)	94(37.3)	158(62.7)	7.068***
육아 정보 제공	놀이관련 정보	84(60.4)	55(39.6)	66(58.4)	47(41.6)	150(59.5)	102(40.5)	.106
	어린이집 이용안내	73(52.5)	66(47.5)	57(50.4)	56(49.6)	130(51.6)	122(48.4)	.108
	홈페이지 육아정보	65(46.8)	74(53.2)	60(53.1)	53(46.9)	125(49.6)	127(50.4)	1.001
	육아정보지 발간	65(46.8)	74(53.2)	58(51.3)	55(48.7)	123(48.8)	129(51.2)	.520
	지역 육아정보 문의	71(51.1)	68(48.9)	50(44.2)	63(55.8)	121(48.0)	131(52.0)	1.16
부모 모임 지원	부모힐링 프로그램	72(51.8)	67(48.2)	55(48.7)	58(51.3)	127(50.4)	125(49.6)	.244
	부모 자조모임	72(51.8)	67(48.2)	56(49.6)	57(50.4)	128(50.8)	124(49.2)	.125
	부모 동아리	67(48.2)	72(51.8)	57(50.4)	56(49.6)	124(49.2)	28(50.8)	.125
부모 교육 및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82(59.0)	57(41.0)	74(65.5)	39(34.5)	156(61.9)	96(38.1)	1.115
	부모상담	66(47.5)	73(52.5)	63(55.8)	50(44.2)	129(51.2)	123(48.8)	1.706
	영유아상담 및 치료	76(54.7)	63(45.3)	61(54.0)	50(46.0)	137(54.4)	115(45.6)	.012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6에서 수도권 부모들이 20% 내외의 큰 차이를 보이며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가정양육 서비스를 살펴보면, 놀이 체험실 이용(61.2%),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활동(61.2%), 가족문화 행사(59.0%), 놀이 관련 정보(60.4%), 자녀 양육 부모 교육(59.0%) 이었다. 아울러 20% 이상 큰 차이가 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없었다.

비수도권 부모들이 20% 내외의 큰 차이를 보이며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것은 자녀 양육 부모 교육(65.5%)이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것은 육아용품 대여(71.7%), 장난감 대여(63.7%), 시간제 보육실 이용(64.6%)이었다.

수도권 부모와 비수도권 부모들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시간제 보육실 이용($\chi^2(1) = 6.79, p < .001$), 육아용품 대여($\chi^2(1) = 7.068, p < .001$)로 응답하였다. 시간제 보육실 이용에 대한 비수도권 부모들은 64.6%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수도권 부모들의 51.8%가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육아용품 대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한 부모가 71.7%이었으나, 수도권 부모들은 55.4%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4.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합성 인식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적합성 인식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적합성 인식의 차이 (N = 252)

구분	맞벌이 (161)		홀벌이 (91)		전체		$\chi^2/df=1$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놀이 체험	놀이체험실 이용	94(58.4)	67(41.6)	54(59.3)	37(40.7)	148(58.7)	104(41.3)	.022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 활동	97(60.2)	64(39.8)	51(56.0)	40(38.5)	148(58.7)	104(41.3)	.424
	시간제 보육실	68(42.2)	93(57.8)	44(48.4)	47(51.6)	112(44.4)	140(56.5)	.881
	가족 문화행사	91(56.5)	70(43.5)	52(57.1)	39(42.9)	143(56.7)	109(43.3)	.009
물품 대여	장난감 대여	64(39.8)	97(60.2)	39(42.9)	52(57.1)	103(40.9)	149(59.1)	.232
	도서 대여	78(48.4)	83(51.6)	45(49.5)	46(50.5)	123(48.8)	129(51.2)	.023
	육아용품 대여	60(37.3)	101(62.7)	34(37.4)	57(62.6)	94(37.3)	158(62.7)	.000
육아 정보 제공	놀이 관련 정보	96(59.6)	65(40.4)	54(59.3)	37(40.7)	150(59.5)	102(40.5)	.002
	어린이집 이용안내	85(52.8)	76(47.2)	45(49.5)	46(50.5)	130(51.6)	122(48.4)	.260
	홈페이지 육아정보	85(52.8)	76(47.2)	40(44.0)	51(56.0)	125(49.6)	127(50.4)	1.817
	육아정보지 발간	87(54.0)	74(46.0)	36(39.6)	55(60.4)	123(48.8)	129(51.2)	4.877**
지역 육아정보 문의	89(55.3)	72(44.7)	32(35.2)	59(64.8)	121(48.0)	131(52.0)	9.424**	

표 7. 계속

구분	맞벌이 (161)		홀벌이 (91)		전체		$\chi^2/df=1$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부모 모임	부모힐링 프로그램	87(54.0)	74(46.0)	40(44.0)	51(56.0)	127(50.4)	125(49.6)	2.364
	부모 자조모임	82(52.8)	76(47.2)	43(47.3)	48(52.7)	128(50.8)	124(49.2)	.715
	부모 동아리	84(52.2)	77(47.8)	40(44.0)	51(56.0)	124(49.2)	128(50.8)	1.571
부모 교육	자녀양육 부모교육	97(60.2)	64(39.8)	59(64.8)	32(35.2)	156(61.9)	96(38.1)	.519
	부모상담	80(50.9)	79(49.1)	47(51.6)	44(48.4)	129(51.2)	123(48.8)	.012
상담	영유아 상담 및 치료	90(55.9)	71(44.1)	47(51.6)	44(48.4)	137(54.4)	115(45.6)	.424

** $p < .01$, *** $p < .001$.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맞벌이 부모나 홀벌이 부모나 적합성 인식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부모들의 응답 중 20% 내외로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서비스는 부모-자녀 소그룹 놀이 활동(60.2%), 놀이 관련 정보(59.6%), 자녀 양육 부모 교육(60.2%)이었다. 20% 내외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은 장난감 대여(60.2%), 육아용품 대여(62.7%)이었다.

홀벌이 부모들의 응답 중 20% 내외로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 서비스는 놀이 체험실 이용(59.3%), 놀이 관련 정보(59.3%), 자녀 양육 부모 교육(64.8%)이었다. 20% 내외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은 육아용품 대여(62.6%), 육아 정보지 발간(60.4%), 지역 육아 정보 문의(64.8%)이었다.

18개 서비스 중에 16개가 전체적 양상과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육아 정보지 발간($\chi^2(1) = 4.877, p < .01$)과 지역 육아 정보 문의($\chi^2(1) = 9.424, p < .01$)이었다. 육아 정보지 발간은 맞벌이 가정은 유아교육진흥원(54.0%), 홀벌이 가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60.4%)로 나타난 결과이다. 지역 육아 정보 역시 맞벌이 가정은 유아교육진흥원(55.3%), 홀벌이 가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64.8%)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현황과 기능을 파악하여 유보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둘 중에 어느 기관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기관 적합성 인식에 차이를 가져왔다.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합성 인식이 높았다.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두 기관에 대한 적합성을 비슷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두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범주 18개 중 10개가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수가 적지만, 이용한 부모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더 우위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군구 기초 단위로 출생신고나 전입 신고 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아 부모들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영아 부모는 지역주민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출생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아 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보다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주요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실 이용, 장난감과 육아용품의 대여, 홈페이지, 육아정보지 및 지역 육아 정보 문의 서비스 등의 육아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며(권중애, 2024), 장난감도서관 등의 대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모와의 접촉이 많은 것의 결과로 사료 된다(김민재, 2017; 최세나, 2018). 부모들이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의 지역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접근성이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부모들은 비수도권에 비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적합성이 높게 인식했다. 수도권의 부모들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18개 중 12개가 유아교육진흥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연수 만족도를 조사한 문희선(2018)의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서비스 접근 경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 부모들을 위해 이용 시간의 다양화와 같은 다각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맞벌이 부모들은 홀벌이 부모보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적합성 인식을 18개 중 14개로 더 많았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지역에서 부모의 요구를 분석한 이해정 외(2015)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주말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의 요구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청 산하의 기관으로서 학부모 이외의 지역사회 맞벌이 부모들에게 다양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창현 외(2018)가 유아교육진흥원이 체험 중심 시설로 강화하고자 할 때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와 가족 지원 기능을 중점에 두고, 지역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모보다는 맞벌이 부모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중 부모 상담과 교육에 대한 적합성 인식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높았던 점은 최은영(2015)의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부모 상담 및 교육, 가족 체험교육 등의 학부모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의 양육지원 거점 기관으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수용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개선해 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개소 수가 상대적으로 현격히 적고, 두 기관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결손이 될 수 있다. 정현심(2023)이 서울 시내의 128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분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대역 서비스의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개소 수가 많다 하더라도 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지역 단위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분리나 보강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의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은 설치 현황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엄문영, 2024). 유아교육과 보육의 표층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함께 두 기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로 다른 업무 특성이 있으며, 기존의 두 기관이 가지고 있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합적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와 유아교육진흥원의 하위프로그램 영역에서의 강점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영유아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촘촘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김미정, 이지선, 2024). 특히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경우 ‘제4차(2023~2027) 중장기보육기본계획’과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과제로 모두 선정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 추진 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지역 범위를 고려하였으나, 표본추출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집단을 확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 연구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정보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실무자를 연구 대상에 참여시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양적 연구로만 이루어져 부모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한 배경의 부모 목소리가 반영되는 질적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 (2015). 기관 미이용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지역중심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연구**, 35(5), 281-300. doi:10.18023/KJECE.2015.35.5.013
- 고연경 (2019).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내 양육태도 및 가족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재경 (2019). 부모소모임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24. 6).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92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4년 6월 27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영유아보육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2024년7월21일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에서2024년7월21일인출>
-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6-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kicce.re.kr/main/index.do>에서 2024년 6월 28일 인출
- 권종애 (2024).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담당자의 생각과 경험 연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6(1), 35-52.
- 김경미 (2019).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사업 평가지표 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0(119), 27-51. doi:10.37918/kce.2019.11.119.27
- 김미정, 이지선 (2024).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현안보고서 2024-05).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6668&menuLevel=3&menuNo=26>에서 2024년 6월 28일 인출
- 김민재 (2017).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개선 요구 조사 : 성남 아이사랑놀이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설아 (2015).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이용 실태와 인식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이유미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자조모임 활동이 부모효능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231-250. doi:10.36431/JPE.13.3.11
- 김아름, 최윤경, 심현기, 박유경 (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연구보고 2023-0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2423&otpSeq=0&popup=P에서 2024년 6월 30일 인출
- 김인희 (2021).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진흥원체험시설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 (2013). 육아지원 전달체제로서의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 18(4), 681-700. doi:10.13049/kfwa.2013.18.4.681
- 문희선 (2018).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연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3(2), 31-59. doi:10.20926/ETPIYC.2018.3.2.2
- 박선경 (2017). 영아 부모의 장난감도서관 이용과 놀이감 선택에 대한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현, 김근진, 최윤경 (2018).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10년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8-0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https://nl.go.kr/seoji/contents/S80100000000.do?schM=intgr_detail_view_isbn&isbn=9791185540115#open에서 2024년 6월 30일에 인출
- 손경화 (2017). 가정양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수준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문영 (2024, 4).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조직 및 관리 체계 개편 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24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충남.
- 엄민정 (2021).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경하 (201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이용현황 및 요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길나, 강은진 (2016).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그림책육아 부모소모임 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269-293. doi:10.22154/JCLE.17.4.12
- 윤경미 (202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탐색: 유보통합에 관한 보육전문요원과 센터장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에듀테인먼트연구**, 5(4), 141-153. doi:10.36237/koedus.5.4.141
- 윤덕우 (2011). 저출산 사회에서의 확대가족 유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도은 (202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선 (2017).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경 (2014). 유아체험 교육기관의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형, 김성순 (2020).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보고서 2020-1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01459>에서 2024년 6월 19일 인출
- 이혜정, 이인희, 이지혜 (2015). 유아교육진흥원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견해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0), 6743-6750. doi:10.5762/KAIS.2015.16.10.6743
- 이희은 (2016). 전북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와 요구 분석.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12).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http://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l.jsp?BBSGB=50&flag=Sl&BID=54957>에서 2024년 06월 30일 인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6646&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에서 2024년 6월 19일 인출
- 전효정 (2024).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한자녀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향 예측: 머신러닝 방법의 적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2), 127-143. doi:10.14698/jkcce.2024.20.02.127
-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doi:10.18023/kjece.2013.33.2.008
- 정현심 (202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현황 분석: 서울시 25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1), 773-786. doi:10.22251/jlcci.2023.23.11.77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n.d.) 가정양육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600221.jsp에서 2024년 7월 9일 인출
- 진경선, 김고은 (2020).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1-29. doi:10.14698/jkcce.2020.16.04.001
- 최미란, 장경은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53-73. doi:10.14698/jkcce.2017.13.04.053
- 최명희 (2016).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시대적 변화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세나 (2018).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이용 경험과 대여 장난감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2015).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5).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2015 이슈페이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KICCE00032968&otpSeq=0&popup=P에서 2024년 6월 30일 인출
- 최혜미 (2015).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경험과 요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미, 김태우 (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분석과 이관 방안**(연구보고 2023-0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470>에서 2024년 6월 30일 인출
- 통계청 (2023. 3). **2022 한국의 사회지표**. <https://www.kostat.go.kr/unifSearch/search.es>에서 2024년 6월 30일 인출

논문투고: 24.06.24.
수정원고접수: 24.07.13.
최종게재결정: 24.07.25.